

# 주일 예배 순서

- 부활절 제4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 47:1-9 .....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 31장(새 67장) .....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12번(새 19번) .....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임재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고자 하는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함을 깨뜨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이기심으로 뭉쳐진 자아가 꿈틀거릴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와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아 기도 가운데 더욱 깨어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주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 로마서 12:17-21 .....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 봉 헌(offering) ..... 350장(새 320장) .....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 찬 송(Hymn) ..... 369장(새 218장)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성경공부 및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30분에 있습니다.
3. 신성화 집사님 어머니이신 원금례집사님의 장례예식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여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과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임현정사모님 어머님, 기길숙 성도님

〈말씀묵상〉 로마서 12:17-21

-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 사도바울은 악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해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17-18, 21절) 나는 지금까지 악한 일이나 악한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하며 살아 왔습니까?
2.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19-20절)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같이 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악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을 때는 좀처럼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은혜의 시간에는 감사의 미소와 기쁨의 노래가 나오다가도 갑자기 고난이 닥치거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순식간에 표정과 마음이 돌변하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재가 되고 현실이 되는지 보여주고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훈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은 갑자기 닥친 일에 잠깐은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평안을 되찾고 다시 말씀에 의지해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일을 당하고 원수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금방 알게 됩니다. 평소 순종하고 훈련받은 대로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조금은 더 힘들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때는 원수의 조롱과 멸시도 그를 막지 못하며 악한 일도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악을 선으로 이겨 예수님과 같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